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연계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이효영, 한상훈*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A Case Study on the Linkage of Lifelong Education between Social Enterprises and the Vulnerable

Hyo-Young Lee, Sang-Hun H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평생교육 연계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취약계층의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에 대한 실제적 사례연구로 사회적기업 2곳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면담한 결과와 관련 정보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의 유형 범주에 따른 취약계층 평생교육을 고찰을 통해 취약계층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인증유형과의 연계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인 ‘민들레누비’, ‘은빛등지’ 2곳의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운영과 평생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만족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취약계층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현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연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른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정부의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진입과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 공간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밀착형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구성원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에 실제적인 자료의 제공과 평생교육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us study examined the possible the link between social enterprises and lifelong education for the underprivileged. To this end, this study searched for the definition and position of social enterprises emerging from the welfare system under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and overcoming the problems in terms of creating social jobs and providing welfare services. In addition,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underprivileged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subjects, such as the disabled, migrant women, young and adult low-income group, and senior citizens. The plan was as follows. First, the expansion of the proportion of community-affiliated social enterprises was analyzed. Second, it provides a differentiated support and protection market for social enterprise. Third,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ocial entrepreneur training programs was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ntire society should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support of the underprivileged. This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linkage of lifelong education and social enterprise in the expansion possibil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expand lifelong education for the underprivileged.

Keyword : lifelong education, social enterprise, Social participation, job creation, vulnerable social group

*Corresponding Author : Sang-Hoon Han(Chungnam National Univ.)
Tel: +82-10-5603-0391 email: hoona@cnu.ac.kr

Received January 19, 2017
Accepted April 7, 2017

Revised (1st March 8, 2017, 2nd March 21, 2017)
Published April 30, 2017

1. 서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기업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만성적인 고실업과 사회양극화와 계층간 빈부격차 심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추어볼 때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은 취약계층 자립 능력 함양 및 사회통합의 유도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의 계층간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1].

계층 간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물질적·제도적 지원만을 담당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조직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양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기퇴직과 실업자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따라 이에 대비할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체계는 한계를 드러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한 것이다. 즉 사회적기업은 신자유주의 영향이 지배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의 시장기능과 활동을 중시하고 정부의 개입은 자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기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회문제해결의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의 본격적 진행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에서 촉발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사회적일자리 논의로 이어졌으며, 사회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2].

무엇보다 평생에 걸친 학습의 필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지만 평생교육의 기회는 아직도 한정되어 있고, 유상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평생교육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교육기회의 분배가 사회계층배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평생교육기회가 사회계층의 차이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이 드러난다[3].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평생교육제공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기회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능력

함양, 사회통합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사회적기업은 평생교육 이념에서 밀접한 관계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목적과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유사성을 갖는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 수익과 이윤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투자라는 점에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강화와 함께 영업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평생교육기회의 복지향상과 보장적평등정책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셋째,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의 사회적 기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자활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자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대상취업촉진사업으로써 근로연계복지제도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4]. 정부와 사회복지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복지제도로 분류하고 있다[5].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은 현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대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진입과 연계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에의 참여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통합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의 연계가 평생교육 양극화 현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이슈의 제공과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에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유형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6], 사회통합의 측면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 연구[7],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 연대와 취약계층 참여구조에 대한 연구[8], 사회적기업과 평생교육학 연구와[9]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 제공의 수단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어 일자리 프로그램개발, 연수, 교육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에 고용될 수 있는 유형의 사회적기업 유치를 제안한 연구[10],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지방이나 대학 정규 교육과정 개설 등을 제안한 연구[11], 노인의 학습동아리가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한 사례연구[12], 노인의 고용의 연결

통로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13-15]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내에서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제공과 연계에 관련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이전 선행연구들은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을 연계한 사회적기업 연계와 관련된 연구로는 관련성이 적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통해,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른 취약계층 평생교육 가능성을 확인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 등 사회적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반면 폐업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늘어나고 있다[16]. 특히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희망근로·공공근로 등과 비슷한 일자리창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연계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성장의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내에서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의 장으로 안정적 운영과 모범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민들레누비’, ‘은빛동지’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평생교육연계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연계에 있어 취약계층의 직무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사례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의 지속적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셋째,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구체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취약계층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에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자료의 제공과 취약계층 평생교육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합이 발전된 형태이다[17]. OECD[18]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익을 위해 조직되며 주된 목적은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량을 가진 조직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신용협동조합운동, 환경운동과 연계된 1980년대 소비자 협동조합운동이 사회적기업의 개념으로 태동되었다[19]. 이전의 정부정책과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던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 확산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고실업과 근로자 간의 소득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즉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보완하고자 사회적기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등장 배경과 목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

Table 1. Definition of social enterprise related to vulnerable class title

Researcher	Definition
REDF(1996)	Revenue-generating ventures to provide economic opportunities for low-income earners
OECD(1999)	A business strategy for the public good that organizes its objectives in realizing economic and social goals rather than maximizing profit, and presents innovative solutions to social exclusion and unemployment issues
Babos(2007)	Organizations that provide labor integration and social services for the vulnerable
Kim Sun-yang(2008)	A company that pursues social goals that provide social jobs and social services to vulnerable groups

* Source: Ki-hyun Kim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 Focused on the Types of Structure and Shape”, A doctoral dissertation from Korea University, 16-17, 2013.

2. 이론적 논의

2.1 사회적기업과 인증유형에 따른 연계

사회적기업은 1994년 King Baudouin Foundation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그 출현은 19세기에 등장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회적 경제와 같은 법인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을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별로 인증을 받게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1,718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수를 포함하면 향후 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유형에 따라 다시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은 1,194개(70.3%), 사회서비스제공형은 107개(5.9%), 지역사회 공헌형은 67개(3.2%), 그리고 혼합형이 171개(10.3%), 기타형은 179개(10.4%)로 나타났다[20].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이 전체의 7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회적 배제와 실업문제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연계와 함께 기술과 직무교육을 연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촉진과 확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직무교육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제적 대안은 평생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21].

Table 2. Types of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characteristic		Whole investigation(n=993)	
		n	(%)
Authentication Type	Job-providing type	648	65.3
	Social service provision type	59	5.9
	Community contribution type	11	1.1
	Mixed type	146	14.7
	Others	129	13.0
Organization type	Civil Law Corporation	212	21.3
	Nonprofit civil society	104	10.5
	Social welfare lawyer	97	9.8
	Commercial law company	527	53.1
	Consumer Life Cooperative	12	1.2
	Farmers' Union Act	30	3.0
	General / Social Cooperative	9	0.9
	Etc	2	0.2

* Source: Ji-Young w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employment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vulnerable groups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8(3), 209-235, 2016.

사회적기업 유형별 사례에 따른 취약계층 평생교육 연계 가능성을 탐색 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가지 유형중 일자리 제공형으로 메자닌아이팩을 살펴보면 메자닌아이팩은 새터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22]. 새터민의 자립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종이와 상자를 제조하는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직무관련 기술과 지식을 습득을 위한 직업능력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한글교육의 지원과 연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휴먼 케어는 지역의 돌봄서비스를 책임지는 기업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를 배려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요양기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주로 운영한다[23].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 교육은 40시간을 이수해야 가능하며, 요양을 위한 요양보호사 등 직무교육 관련한 자격증 취득 양성과정 연계가 가능하다. 지역사회공헌형인 흥성 풀무나무 영농조합법인은 흥성지역의 시설기반과 인적지반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포장과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여성인력이 생산 가공활동 참여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통해 생산소비자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20]. 특히 도농간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여성인력이 가공활동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기술에 대한 평생교육의 제공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혼합형 사회적기업인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청소년, 여성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등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체회사로 ‘가라치면서 배우기’, ‘삶과 함께하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 ‘배우면서 일하기’를 중심으로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이다[24]. 직원은 모두 33명으로 이 가운데 29명이 여성이다. 이 중 이주여성은 5명으로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러시아 등지에서 왔으며, 한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사회에 정착한 ‘외국계 한국여성’이다. 바리스타 교육, 영세프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직업능력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언어의 벽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이들을 위한 교육 연계가 요구된다. 기타형으로 구분되는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는 재활용품을 기부 받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25]. 특히 공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조직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독특한 조직정체성은 영리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내부의 교육활동으로[26], 서로가 배우고 상호 영향을 주는 학습공동체로서의 연계가 가능하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평생학습동아리가 사회적기업

으로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의 창업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탈바꿈하였다.

2.2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연계는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다.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OECD에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보고서가 발표하면서 평생교육은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제한된 영역이 아니며, 누구나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개인의 발달과 사회적 결속, 경제 성장까지를 이루어 나가야함을 의미하고 있다[27]. 그러나 평생교육 이념과는 달리 현재의 형식적 교육에서 갖게 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형식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평생교육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취약계층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28].

Table 3. Classification of education alienated class

division	object
Traditional socio-economic exclusion hierarchy	Low-income
	Less educated youth
	Women(low-educated,low-incomeunemployed,middle-aged women)
	Low-skilled, low-skilled workers
Labor market exclusion hierarchy	Long-term unemployed
	Irregular workers
A special vulnerable layer	A scholastic disabled person
	Adult disabled
Elderly vulnerable group	Foreign worker
	Low-educated elderly
	Low-income elderly
Temporary Vulnerable layer	expropriator
	North Korean defectors

* Source: Young Sun na, “Thematic review of adult learning : focused on the low-ecucated & low-skille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3, 2003.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아실현과 자립능력 함양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와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학습기회를 놓친 노인과 다문화 가정 이주민에게 기초학습능력을 제공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맞벌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역사 문화체험 학습, 미취업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징검다리 프로그램에, 지적장애인 대상 화해 재배

프로그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평생학습관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대상별, 지역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 중인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다.

취약계층 대상의 평생교육 구분과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9].

Table 4. Lifelong education program

Area	Subregion	example
Basic Literacy	Character reading	Korean classroom, Learning Account Unaccredited Hangul Lecture
	Basic Living Technology	Multi cultural Education, Korean Application Training
	Literacy learning account	Recognized Elementary Education, Literacy course
Supplementary Education	elementary Supplementary Education	Recognized Elementary Education, Elementary school lectures
	Middle Supplementary Education	Intermediate course for students, High Grade Test, Career courses
	high Supplementary Education	A poetics course, Credit banking system
Occupational ability	Job preparation	Manpower training course
	Cretification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Current job capacity	Common job training, Lifelong education teacher training
Arts & Culture	Leisure Life Sports	Life Sports
	Life culture art	Photo art, Song classroom
	Cultural Arts Enhancement	ceramic ware, Cultural Arts
Liberal arts education	Healthy heart	Counseling therapy
	Functional literacy	Living foreign language
	Humanities	General literature

* Source: Yi-Eun Lee, “The Influence of Lifelong Learning Factors on Social Participation in the Underprivileged”, Lifelong Education and HRD Research, 9 (2), 91-118, 2013.

특히 취약계층 대상별로 볼 때 장애인의 경우,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는 장애인의 비율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고, 진학률과 취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취업이 증가하려면 취업할 만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교육기회가 늘어나야 한다[30].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생애주기별 교육영역에 따라 적용기에는 의사소통 교육이, 발전기에는 인문교육 학력보완 교육, 그리고 안정기에는 전문 직업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장년 저소득자의 경우 학력에 상관없이 취업률은 계속 낮아지는 사회구조가 저학력.저소득자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저소득자가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여 소득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고령화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20년 15.7%, 2026년 20.8%, 2030년 24.3%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31].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평생교육에서 노인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연계한다면 취약계층과 관련한 사회문제해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2.3 지역기반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

평생교육의 시·군·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의 건설, 지역중심 학습동아리, 평생학습축제, 마을만들기 등의 지역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는 평생교육은 지역사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이 평생교육의 일원임을 의미한다. 평생학습도시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 문해교육사업과 같은 지역평생학습 정책은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과 연계가능하다. 특히 지역연계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지역내 특산품, 지역특징을 반영하여 운영할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장점은 다음과 같다[32].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지역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갖는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통합을 통해 지역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취약계층의 문화를 시민단체 비영리조직으로서 고용,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개별적 생존의 의미를 넘어 지역 내 사회적 경제망이 구성됨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자원 동원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참여, 파트너십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지역 민간단체들의 파트너십이 요구될 것이다. 셋째,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은 지역개발 또는 마을만들기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평생교육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은 마을의 구성원이라는 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기업은 생활과 노동의 지역사회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학습공동체는 사회적기업 생성으로 이어지는 발전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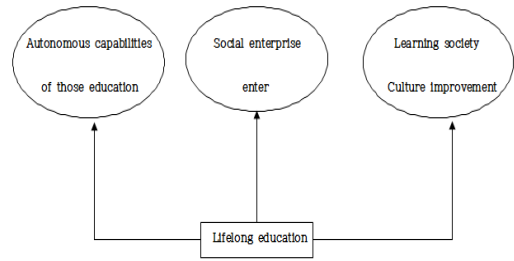


Fig. 1. Linkage to lifelong education for the underprivileged

이상으로 이와 같이 취약계층 평생교육의 사회적기업 연계는 인증유형에 따른 설립과 운영,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가능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학습공동체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연계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 탐색을 통해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실제적 사례 연구를 통해 그 과정을 탐색하였다. 그 동안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왔지만, 평생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평생교육 연계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를 선택하여 면담 방법을 진행하였다. 질적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론적 검증에 위한 양적연구보다는 질적연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질적연구는 이론구축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분야를 실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적절하다[33].

3.1 연구 참여조직 선정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업 평생교육연계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두 가지 유형 즉,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형 사회적기업과 지역학습공동체 연계형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우선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형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에 참여하면서 확장되어 일자리창출의 연계 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는 유형이다. 그리고 지역학습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확장의 경우 자발적 학습동아리 모임이 사회적기업으로 연결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평생교육 출발과정에서 차이는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설립에 다양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연구절차와 자료수집

본 연구는 취약계층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민감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문헌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한국 사회적기업의 인증 유형별로 사회적기업 문서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별 기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토대로 취약계층 평생교육을 연계하고 있는 2곳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면담(전화 인터뷰 포함)을 실시하였다.

사회적기업 유형 중 특히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연계에 있어 안정적이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 사회적 기업에 대한 면담은 2016년 5월부터 6월 사이 실시하였다.

3.3 연구 참여자 정보

<사례 A>는 통영 YMCA가 2008년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정착을 돕기 위해 시작으로 2011년 9월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었고, 2012년 1월 주식회사 민들레누비로, 2013년 9월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았다. 한글교육을 가르치는 민들레학교와 지역연계형 일자리창출 평생교육 누비양성과정지원을 받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8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이다.

<사례 B>는 사례A와 같은 사회적기업으로 연구참여자로 6년 전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이다. 3살과 6살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누비양성과정 수강생 참여를 시작으로 누비전문가 양성과정 이수 후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었다.

<사례 C>는 노인 학습동아리에서 2003년 ‘비영리사회단체’ 등록을 하였고, 이후 2009년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인 ‘은빛미디어’로 변화하면서 학습공동체는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로 연계되었다. 2011년에는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승인받아 동영상 촬영 및 제작을 수주 받아 영상작품을 제작하는 정식 미디어

업체로 활약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73세 여성노인으로 한글자격증반에서 컴퓨터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례 D>는 사례 C와 같은 사회적기업의 연구참여자로 ‘은빛미디어’ 교육원장이다. 학습동아리 활동시작부터 지금의 사회적기업으로 변화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해왔으며, IT기반 노인평생학습당으로 동영상제작, 포토샵, 디지털카메라 강좌 등 지역 학습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연계되었다.

Table 5. research participator information

division	case A	case B	case C	case D
Organization type	Corporation	Corporation	Cooperative	Cooperative
type	Creating a job	Creating a job	Creating a job	Creating a job
Main business	care	care	education	education
Link to lifelong education	Expert training	Expert training	Learning club	Learning club
Research participants	A migrant woman	A migrant woman	old man	representation

4. 연구결과

4.1 초기단계 평생교육 연계

‘민들레누비’는 사회적 기업 내에서 이주여성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통영전통누비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정착을 돕기 위해 통영전통누비기술교육을 시작하면서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통영 서호 시장내 민들레누비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민들레학교에서는 이주여성 대상 한글교실을 개최하였다. 사례 A의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정에서 이주여성들의 취업에 관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인 한글교실에도 참여하면서 누비전문가 양성교육으로 연계된 점을 강조하였다. 결혼 이주여성에게 민들레누비는 모국을 떠나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긍정적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누비 배웠는데 재밌고 좋아요. 예쁜 가방 만들고 싶어요. 애기 어린이집 가서 있는 동안 여기 와서 누비 배웠어요. 한국어도 공부해요. 다 배우고 애기 가방도 만들고 싶어요.” (사례B 연구참여자)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구축과 연계된다. 학습공동체는 지리적인 영역, 사회적인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 등 세 가지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34].

특히 지역사회 학습공동체는 공통의 연대와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삶을 추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으로의 참여와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즉,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유인하여 지역 내에 역할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학습공동체에 소속된 주민이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취약계층의 폭을 점차 넓히면서 평생교육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내가 70살이 넘어서 컴퓨터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새로운 세상에 사는 기분이 들고 여기 나와서 있으면 시간가는 줄을 몰라요. 자신감도 생겼고 지금은 여기 오는 게 삶의 낙이니까요. 컴퓨터 하니까 손녀딸한테 메일도 보내고 우리 손녀딸도 할머니 대단하다고 해줘요.” (사례C 연구참여자)

‘은빛등지’는 지역사회 학습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연계되어 노인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이다. ‘은빛등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노인 학습동아리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으로 2001년 노인의 평생교육 일환인 컴퓨터 학습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지역학습공동체인 학습동아리의 평생교육은 개인의 학습 일상화와 삶의 만족감을 느낌으로 취약계층 평생교육 연계의 의미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4.2 성장단계 일자리 창출

‘민들레누비’는 1,2기 분기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통영 누비전문가 양성과정을 무료로 개설하여 30여명의 결혼 이주여성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분류에 따른 대상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도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 지역공동체사업, 학습형 일자리 연계 모델 구축사업, 여성취업 역량 강화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연계

하여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결혼 이주여성이 ‘민들레누비’에서 누비전문가 양성과정을 등록하여 누비 만드는 방법과 원리를 배우는 이주여성은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배우이 익숙해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로 연결되면서 이주여성은 뿌듯함과 만족감을 갖는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배우는게 좀 어렵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손이 익숙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좋아서 괜찮아요. 고향 부모님은 우리 딸 대단하다고 하죠. 이쁘다고 해요. 이런 것도 만들줄 아냐고. 제가 직접 만든 가방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해요.” (사례A 연구참여자)

‘은빛등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학습공동체이며 이러한 지역사회 학습공동체는 지역 구성원 간 공동의 결속감을 바탕으로 소속감과 상호호혜성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가 되면서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라는 또 다른 사회 창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은빛미디어는 노인들도 변해야 하는 시대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노인이 함께 모여 디지털 기술을 평생학습개념으로 배웠고 그렇게 배운 결과물이 노인의 수익모델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재탄생하여 5000여명의 IT교육생도 배출되고 연간 수입도 2억원이 넘는 여전한 실버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례D 연구참여자)

성장단계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별 학습공동체에 의해 연계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는 지역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에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5]은 사회적기업이 지역주민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운영되므로 자율성의 정도가 높다. 둘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셋째, 지역사회 시민에 의해 주도권이 행사된다. 넷째,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영향을 받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한다. 다섯째, 영리적 극대화를 따

르지 않고 이익의 상당부분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역학 습공동체는 자연적이며 사회적 과정을 거쳐 조직된 학습 집단으로써 학습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나가고 이를 통해 초기단계 평생교육 연가 성자단계로 진입하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연계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는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념과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간의 연계를 탐색하여 그 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평생교육 유형별 사회적 기업을 분석하고 그 중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곳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연계 가능성과 긍정적 실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유형 범주에 따른 취약계층 평생교육을 고찰을 통해 취약계층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인증유형과의 연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인 ‘민들레누비’, ‘은빛동지’ 2곳의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운영과 사회적기업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만족감을 확인하였다.

셋째, 취약계층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현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의 창업 방면,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있어 긍정적인 면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구조적 실업, 정부 재정 적자의 해소 등의 적극적인 통합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36]. 또한 이러한 논의는 선행연구[6, 7, 9, 30]의 제안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부가 공공재원으로 취약계층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26].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평생교육기관과 연계되어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자력화와 사회적 참여에 도움을 주는 지속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이상(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의 평생교육과 사회적 기업 간의 연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른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족한 사회복지 보완해주는 제3의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에 밀착한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은 지역 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장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되어 사회적 기업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정부의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승인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며, 사회적기업의 등록기간에 따라 정부에서 실시되는 각종 지원사업과 후원 등을 차등 배분하여 초기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지원시스템의 재정비와 관련 조례 등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진입과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민·관·기업의 협업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직무훈련을 위해 협업체제를 통한 우수기업과 지역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활동과 학습기자재 보급과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넷째,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사회적기업가 양성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청장년 저소득자와 저학력 청소년, 저학력, 저소득 여성과 장기실업 등의 취약계층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가로 양성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 교육시설, 공간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밀착형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친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소속된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담당자, 평생교육사 배치, 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의 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 내에서의 취약계층의 발생은 비단 그들 자신의 무능력과 부적응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이 전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의 평생교육 공급 여건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취약계층 평생교육과 연계한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결과와 제안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과 평생교육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실천적 과정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지역학습공동체는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평생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학습공동체와 평생교육기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연계, 사회적기업 육성과정 연계, 취약계층의 자력화로 확장될 수 있는 창업전문과정 연계 등의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 모델 등의 실제적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아실현, 사회적 역할의 인지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기회와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며, 취약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등 취약계층 평생교육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References

[1]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underprivileged in 2011, "support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Continuing Education Agency report", 2012.

[2] Hye-won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Research*, vol. 4, no. 1, 55-80, 2011.

[3] Shin-il Kim, "Sociology of education", *Education Science History*, 2014.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usiness Guide", 2013.

[5] In -Jae Lee, Sung-Ki Kim,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policy", *Trends and Prospects*, 97, 111-137, 2016.

[6] Ji-Young w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employment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vulnerable groups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8, no. 3, 209-235, 2016.

[7] Ji-su Yoon, "A Study on the Social Enterprise for Job Creation and Support in the Vulnerable Classes of Social Integration", *Korean Conflict Management Research*, vol. 1, no. 2, 63-84, 2014.

[8] Sung-Hoon Park, "Social solidarity in social enterprises and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structure in vulnerable class", *Social Enterprise Research*, vol. 4, no. 2, 88-106, 2011.

[9] Dae-Jung Kang, "Social Enterprise and Lifelong Education - Context, Phenomenon, Future",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vol. 17, no. 1, 1-24, 2011.

[11] Shin-young Park,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for job creation in local community", *National Institute of Land Research*, 348, 2010.

[12] Jung-Jin Kim, Seong-Yeop Lee, "A Case Study of the Elderly Learning Circle as Social Enterprise: 'Silver Media'", *Journal of Adult Education*, vol. 16, no. 3, 35-59, 2013.

[10] Yong-sun Lee,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Activation Plan of Social Enterprise",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13] Ja-ran Gu, Jong-hyuk Park, "A Study on the Employment of Aging Workers in an Aging Society: Focusing on Field Survey", *Corporate Management Research*, 44, 157-173, 2012.

[12] Yong-jung Kim, "An Exploratory Study on Job Creation of the Elderly through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Venture", *Korean Entrepreneurs Society*, vol. 6, no. 4, 25-46, 2011.

[14] Jin-gon Kim, "Legislative Task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for the Elderly", *Korean Social Policy*, vol. 16, no. 1, 81-121, 2009.
DOI: <https://doi.org/10.17000/kspr.16.1.200907.81>

[15] Ki-un Lee, "Determinants and lifelong learning of the underprivileged Public Works in Korea", *Doctoral thesis of Jeonnam National University*, 2014.

[16] Odan,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Growth Process of Korean Social Enterprise. Doctoral thesis", *Doctoral thesis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13.

[17] Laville, J., Nyssens, M, "Les services sociaux entre associations, Etat et marche: L'aide aux personnes agees", *Sociologie du travail*, vol. 46, no. 2, 277-278, 2004.

[18] OECD, "Social Enterpris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9.

[19] Chan-im, Pak, "Tasks for creating and nurturing social enterprises", *Labor Review*, vol. 8, no. 7, 31-38, 2008.

[20]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www.socialenterprise.or.kr”

- [21] Dae-Bong Kwon, Gyeong-Ran Noh, Jeong-hyeon Byeon, “Employment and lifelong learning of middle and senior citizens”, Seoul: Won Misa, 2008.
- [22] Mezzanine iPack, “www.m-box.co.kr”. Search October 2016.
- [23] Human Care, “www.humancare.co.kr”. Search October 2016.
- [24] Organic cuisine, “www.orgyori.com”. Search October 2016.
- [25] A beautiful store, “www.beautifulstore.org”. Search October 2016.
- [26] Dae-Jung Kang, “Social Enterprise and Lifelong Education - Context, Phenomenon, Future”,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vol. 17, no. 1, 1-24, 2011.
- [27] Larsen, K., Istance, D, “Lifelong learning for all.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bserver, vol. 225, no. 21, 2001.
- [28] Young Sun na, “Thematic review of adult learning : focused on the low-educated & low-skille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3, 2003.
- [29] Yi-Eun Lee, “The Influence of Lifelong Learning Factors on Social Participation in the Underprivileged”, Lifelong Education and HRD Research, 9 (2), 91-118, 2013.
- [30] Ki-un Lee, “Determinants and lifelong learning of the underprivileged Public Works in Korea”, Doctoral thesis of Jeonnam National University, 2014.
- [3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 Seoul”, 2015.
- [32] Jong-Soo Kim,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linking social enterprises with resident autonomous centers”, Urban Administration, vol. 23, no. 1, 47-68, 2010.
- [33] Jung-Won Kim,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he Conversion of Self-Help Community into Cooperative”, Community studies, vol. 20, no. 2, 67-89, 2012.
- [34] Hye-Jin Oh, “A Study on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and Implementation Principle of Learning Community”,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vol. 11, no. 1, 23-41, 2005.
- [35] Defourney, J., Nyssens, M. Defining social enterprise. In M. Nyssens(Ed.).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 [36] Sung-eun Jo, “A Study on the supporting system of social enterprise for the hard-to-employ”,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08.

이 호 영(Hyo-Young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정교사 2급
- 2015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수료
- 2015년 6월 ~ 현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관심분야>

평생교육, HRD, 성인학습

한 상 훈(Sang-Hoon Han)

[정회원]



- 1985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1992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99년 10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성인학습, HRD